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6. 28.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공항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연진, 사무관 박선용, 주무관 김은철 • ☎ (044) 201-4333, 4305	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30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미래 공항을 위한 30년 비전을 세우겠습니다.

### - 「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」 수립 착수 및 공항정책포럼 발족 -

- ◆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향후 30년간 '비전과 전략 2050' 제시
- ◆ '중장기 공항개발 계획' 및 '투자재원 조달계획' 수립
- ◆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'공항정책포럼 발족·운영'
- ◆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'국민 참여·소통 강화'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첨단기술과 항공산업의 성장, 항공교통의 대중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공항개발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하여 「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(‘21~’25)」 수립에 착수했다.

○ 공항개발종합계획은 「공항시설법」 제3조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.

\* 제1차(‘94~’00), 제2차(‘00~’20), 제3차(‘06~’10), 제4차(‘11~’15), 제5차(‘16~’20)

○ 이번 「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」 수립 연구 용역(‘19.6~’20.12)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하고, 기술 부분은 (주)유신에서 담당한다.

□ 그동안 공항은 국가의 교역·경제활동의 중심이며,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보편화·일반화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변모하였다.

○ 최근에는 연관 산업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지역주민 항공교통 편의 향상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서, 공항의 가치가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항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공항을 위하여 「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」 수립 과정에서 향후 30년간의 '비전과 전략 2050'을 제시할 계획이다.

○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따른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항공수요)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여객 및 화물 수요를 예측

② (공항체계) 비전과 전략, 항공수요에 부합토록 현재 공항의 권역 (중부·동남·서남·제주) 및 위계\* (중추·거점·일반)를 재검토

\* 중추 : 우리나라의 대표공항  
(인천)

거점 : 권역내 국내선 및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처리  
(김포, 청주, 김해, 대구, 무안, 제주)

일반 : 지역내 국내선 수요처리  
(원주, 양양, 울산, 포항, 사천, 광주, 여수, 군산)

③ (개발계획) 대내외 여건, 항공수요, 공항체계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공항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

④ (투자재원) 개발계획과 연계,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

□ 국토교통부는 「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」 수립 착수와 함께, 공항 개발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,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'공항정책포럼'을 발족했으며, 앞으로 공항정책 분야의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.

-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,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, 국민참여단 구성·운영 등 국민의 참여·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소통적, 협력적 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.
- 김용석 국토교통부 공항행정정책관은 “공항은 국가의 얼굴이자, 국민의 날개가 되어주며,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복합 기반시설”이라면서,
  - “다음 30년을 위한 공항은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, 성장·혁신·상생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  - 아울러, “정부주도의 단순 공항개발 패러다임을 지역참여형 복합 개발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”임을 밝혔다.
- 앞으로 「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」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기관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\* 심의를 거쳐 ‘20.12월 확정·고시된다.

\* 위원장(국토부 장관), 기재부·과기부·국방부 등 6개 부처 차관, 민간위원 13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박선용 사무관(☎ 044-201-43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